한국문학논총 제33집(2003. 4) pp. 5~33

<龜旨歌>의 戰爭敍事詩的 性格 硏究

차 재 형*

차 례

Ⅰ. 緖 論
Ⅱ. 「駕洛國記」와 <龜旨歌>의 예비적 고찰
Ⅲ. 「駕洛國記」의 서사구조 분석
Ⅳ. <龜旨歌>의 戰爭敍事詩的 구조
1. <구지가> 구조 분석의 전제
2. <구지가>의 전쟁서사시적 구조 분석
Ⅴ. 結 論
참고문헌
영문초록

Ⅰ. 緖 論

建國神話는 한 국가의 시원을 나타내 주는 역사적인 척도이자 국가와 민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극히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락국기」는 가락국의 건국신화인 동시에 씨성(김해 김씨)의 근원설화이기도 하며, 기원을 전후한 당시 한반도 남부의 역사적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수로왕의 사적(事蹟)-수로왕의 탄강과 등극, 가락국과 오가야의 성립, 탈해와의 쟁패, 허황옥과의 결혼-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또한 그 서사 문맥 속에 현전 최고의 상대시가 중 하나인 <구지가>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구지가>는 『삼국유사』卷 二 의 「가락국기」의 '수로왕조'에서 보여지는데, 이 4언4구체의 한역가에 대한 해석과 논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가락국기」와의 서사문맥적 고찰을 통해 왕의 강림을 바라는 전형적인 영신가 내지 영신군가로 간주하는 학설 등이 주류를 이루어 다각적인 해석과 접근에 있어서 한계성을 지녀왔다. 특히 <구지가>가 삽입가요로 존재하는 까닭에 이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보다는 「가락국기」와 <구지가>를 연관지어 연구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구지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 그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 들어 기존의 '영신군가'라는 측면에서의 한정된 고찰에서 다소 벗어나 생성배경이나 고대제의와의 관련성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이나, 그 역시도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구지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당시 한반도 남부의 역사적 상황, 즉 가락국 연맹체의 성립과정을 서사적 측면에서의 재고찰하여 「가락국기」의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구지가>의에 구절분석을 통한 전쟁수행의 단계별 양상을 설정하여 그 이면에 내재된 전쟁 서사시적 성격을 유추해 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기존 연구 성과들에 대한 반론 제기가 아닌 상대시가를 연구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기 위함임을 밝혀 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용단락을 구분함에 있어 <구지가>의 전쟁 서사시적 양상이나 구조를 구명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사서(史書)의 기사와 근자에 다각도로 규명되고 있는 가야사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을 원용하여 「가락국기」의 재해석과 서사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가야지역의 초기 국가체제로의 변화 양상을 살펴 <수로왕 신화> 속에 보여지는 신화 형태를 기존의 "천손강림신화 + 난생신화 = 영신군가"라는 신화학적 해석구조가 아닌 "전쟁을 통한 이질적인 집단 간의 결합과정"으로 보고, 이것이 <구지가>를 해석함에 있어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락국기」의 서사구조 분석을 토대로 <구지가>를 세분화하여 전쟁 서사시적 구조를 설정하여 종래의 연구 성과에 덧붙여 '가야지역의 정복과정에서 발생한 이질집단 간의 충돌과 융합과정에서 발생한 정복자의 노래'로서 그

전쟁 서사시적 성격과 그 구조를 밝히고, 나아가 국문학적 접근이라는 기존의 연구방식에 사학적 텍스트를 원용하여 상대문학의 해석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제기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지가>의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해석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駕洛國記」와 <龜旨歌>의 예비적 고찰

지금까지 가락국의 국가 형성과 성장에 대한 연구는 사서의 기록 부재 및 사료 부족, 빈약한 유물·유적, 가야사에 대한 현 학계의 폄하 내지는 무관심 및 기존 삼국 중심의 사관으로 인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가야지역에 산재했던 6가야를 고대 왕국이라기보다는 초기 국가 단계에서 신라와 백제에 병합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영남지역의 각 대학 및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과거 가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역사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던 가야사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고고학이나 사학 계통의 상당한 연구성과물이 축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야사에 대한 재조명과 고고학적, 사학적 연구 성과물, 사서(史書)의 기사들을 원용 기본 텍스트화 하여 가락국의 성립과 「가락국기」의 형성배경을 신화학적 접근이 아닌 역사적 사료로서 접근하고, 이를 통해 가야사의 실체인식과 「가락국기」와 <구지가>의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가야지역은 기원 전 5-6세기경부터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부족단위 소국형태를 유지하다가 기원전 2-1세기 경 한반도 북부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북방계 이주민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청동기 문화에 철기문화를 복합시킨 새로운 양태의 사회통합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고대 왕국 성립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1)]

---

1) 김정배, 「한국에 있어서의 기마민족 문제」, 『역사학보』 75·76 합집, 1985, p.136.

또한 문헌사료들을 토대로 「가락국기」에 나타난 서사문맥을 <구지가>와의 관련 성에 입각해서 재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사에 주목을 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수로신화에서는 수로왕의 탄강에 앞서 '九干'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 즉 수로왕의 등장으로 인한 가락국의 성립 이전의 가야지역의 상황이 「가락국기」의 초두에 먼저 나오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면 구간의 정체는 기원전 1세기 경 김해 지역의 청동기 문화 단계의 부족 단위 집단이자 당시 김해 지역의 소단위 세력집단들인 가야 九村의 추장들로서 그들은 수로의 탄강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재지 세력 또는 토착 세력의 핵심으로 후일 수로 집단에 의해 가야 지역이 정복되면서 수로가 왕으로 등극하는 배경 세력이 된다.[2] 그러나 수로신화 속에서 보여지는 구간집단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간략하여 그 구체적인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결정적 단서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혁거세 신화>속에 혁거세를 추대하여 왕으로 옹립한 사로 육촌장에 관한 기사를 토대로 수로신화 속에 등장하는 구간 집단의 정체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3]

둘째, 수로왕 탄강 장면의 묘사 부분을 보면 고조선 및 고구려 계통의 신화와 같은 천강 및 난생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가락국의 성립기에 중추 역할을 한 것은 기존의 가야 지역의 토착세력이 아닌 북방으로부터의 이주민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하늘에서 강림한 수로왕이 구간과 같은 재지·토착세력의 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시에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인지는 사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삼국사기』<김유신전>에 나오는 가야 개국 전설이나[4], 「가락국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추정하

---

2) 『三國史記』권41 列傳1 金庾信傳 上에 '駕洛九村'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간은 단일 정치집단 내의 귀족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씨족연맹체인 九村의 각각의 수장, 즉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이현혜, 『삼한 사회 형성과정 연구』(서울 : 일조각, 1984), p.29~48.

4) 『三國史記』「金庾信傳」
"金庾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峰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伽倻 後改爲金官國 其子孫相承 至九世孫仇亥"

건대 대체로 '북방 계통의 이주민이거나 또는 이주민으로서의 명분을 아직 잃지 않은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의 김해 지방에는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부족단위 연맹체인 '구촌 연맹'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도자들인 구간의 합의나 혹은 강력한 정치, 군사, 경제적 기반을 가진 북방 계통 이주민 집단과의 세력다툼에서 패배하여 이주민 계통의 수로를 추대의 형식을 빌어 왕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고, 이어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전후의 시기(통상적으로 A.D 47년으로 기록하고 있음)에 가락국이라는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철기와 기마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전사 집단으로서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면서 정복 전쟁을 통해 기존의 토착 세력들과 기득권을 놓고 충돌하여 종국에 가서는 강력한 군사력의 우위와 선진 문명으로 인해 이 지역을 흡수·통합할 수 있었을 것이다.[5]

또한 「가락국기」에서 수로왕 탄강 이후의 기사를 살펴보면 용성국 출신의 탈해의 왕권도전과 패배, 수로왕비인 하황옥의 도래 등의 기사로 미루어 보아 가야 지방에 유입된 이주민 세력이 비단 북방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락국 형성기에 여러 계통의 이주민들이 다양하게 유입되었고, 기존의 재지·토착 세력이 점유하고 부족 연맹체를 이루고 있던 가야 지방에 두 가지 성격을 띠는 북방계의 이주민들이 유입되어 발달된 선진문명과 청동기 및 철기, 북방지대에서 단련되어 온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지배 세력을 누르고 최고지배집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6] 그 중 수로로 대표되는 북방계 이주민에 의해서 가야 지역에 초기 국가 단계의 가야 소국 연맹체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락국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건국 신화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서사 문맥 속에 담긴 역사적 사실성에 입각하여 재해석할 때 당시 한반도 내의 세력 이동과 이질 집단 간의 화합, 또는 정복민에 의한 고대 왕국의 성립

---

5) 천관우, 『고조선·삼한사 연구』(서울 : 일조각, 1989), p.5~127.

6) 최몽룡·최성락 공저, 『한국 고대국가 형성론-고고학상으로 본 국가』(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98~115.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건국관련 사실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약간의 신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국가 성립시의 신성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락국기」의 형성을 신화의 단계에서 실증적 역사로 인식한다는 전제를 토대로 <구지가>와의 상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당시 북방계 이주민들이 한반도의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토착 세력들과의 마찰은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대체로 이 시기의 북방계통 정복자 집단은 철기를 소유하고 이동에 용이한 기마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 또한 오랜 이동 과정에서 전쟁 수행에 상당히 숙련된 인적 자원, 즉 기마 전사 집단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정복 전쟁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전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에 대해서는 위협이나 굴복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출정에 앞서서 전승을 기원하는 원시종합예술 형태의 제의가 있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염원을 노래의 형태를 빌어 나타내었을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전쟁수행 과정에서 <구지가>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가락국의 건국과 관련된 「가락국기」의 서사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전사 집단의 노래가 건국 신화적 요소를 흡수하여 그 의미 내용이 확대되어 「가락국기」의 삽입가요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락국기」와 <구지가>는 그 발생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지가>는 「가락국기」에서 보여지는 가락국의 형성과정을 집약해서 제시함으로써 「가락국기」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락국의 건국과 수로신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에 있어 먼저 <구지가>의 배경설화로서의 「가락국기」를 재해석하여 신화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문학적 원용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Ⅲ. 「駕洛國記」의 서사구조 분석

「가락국기」는 그 대부분이 수로왕의 탄강과 가락국의 성립, 허황옥과의 결혼 등에 중심을 두고 있는 서사 문맥적 구조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수로의 탄강과 등극이 그 정점을 이루며, 수로신화의 연구는 수로의 탄강·등극 부분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락국기」는 수로왕의 탄강과 가락국의 성립에 대한 건국 신화이자 역사적 반증물이자 <구지가>를 재해석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의 단락 구분처럼「가락국기」의 전문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구지가>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 즉 수로왕 탄강 이전의 가야 지역의 정세와 수로왕의 신이한 탄강, 그리고 구간의 추대라는 형식을 통해 가야 지역에 수로 집단으로 지칭되는 이주민 집단이 중추가 된 새로운 정치 중심 세력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가락국기」의 서사 문맥 구조를 재해석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본고에서는 「가락국기」의 내용과 선행 연구자들의 문단 구분 방식을 원용하여 「가락국기」의 문단을 수로의 탄강 이전 구간들이 다스리던 부족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수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앞서 언급한 서사 문맥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8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가락국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수로의 탄강과 가락국의 건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설들을 텍스트로 하여 이주민 집단의 정복 활동이라는 측면에 논의를 맞추어 그 구조를 '이질적 집단 간의 충돌과 전쟁 상황'으로 설정하여 다음 단락에서 논의될 <구지가>의 전쟁 서사시적 성격을 고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삼았다.

① 가락국 성립 이전 구간의 통치시대(開闢之後～耕田而食)
② 수로의 탄강(屬後漢光武帝建武十八年～歡喜踊躍之也)
③ 수로의 등극과 가락국 및 오가야의 성립(九干等如其言～餘五人各歸爲五伽倻主)
④ 초기국가 형성기의 가락국(東以黃山江～理萬機而懃庶務)
⑤ 탈해와의 술법 겨루기(玩夏國含達王之夫人娠 彌月生卵卵化爲人～事記所載多理如新羅)
⑥ 허황옥의 도래와 수로의 혼인담(屬建武二十四年戊申～以爲王后四時之費)
⑦ 국가체제의 정비(一日上臣下曰 ～ 當煖輿嬌)
⑧ 허황옥과 수로의 죽음(頻年有夢得熊羆之兆 ～ 相機不絶)

본 장에서는 위의 분류표를 바탕으로 <구지가>와 직접 연관성을 가지는 ①, ②, ③, ⑤, ⑥항목만을 다루기로 한다.

① 가락국 성립 이전 구간의 통치시대[7)]

①은 수로의 등극 배경이 되는 구간 집단의 생활인데, 혁거세 신화에서 사로 육촌장이 혁거세 등극의 배경이 됨과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신라가 육촌장을 중심으로 사로 연맹국을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구간은 가락국의 모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수로 집단의 남하 이전에 이미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 지방에는 「가락국기」의 본문 초두의 내용-開闢之後,此地未有邦國之號.亦無君臣之稱-처럼 작은 소국들이 난립하여 서로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고 '간(干)'이라고 불리는 각 부락의 존장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던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부족 연맹체 단계의 사회였음을 출토 유물과 기야사에 관련된 문헌들을 참고로 할 때 유추해 볼 수 있다.

② 수로의 탄강[8)]

---

7) 開闢之後,此地未有邦國之號.亦無君臣之稱.越有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天干,神天干,五天干,神鬼干等九干者,是酋長,領總百姓,凡一百戶,七萬五千人.多以自都山野.鑿井而飮.耕田而食.

8)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禊洛之日.所居北龜旨(是峯巒之稱.若十朋伏之

「가락국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수로의 탄강과 가락국의 성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일 것이다. ①에서 이야기되어진 것처럼 당시 가야 지역은 강력한 지배 질서에 의한 통치가 아닌 구간으로 대표되는 각 부족의 수장들에 의해 다스려지던 부족 연맹체 사회였다. 이들은 각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삼월 계욕지일에는 모두 구지봉에 모여 하늘에 제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였을 것이다.

②부분을 김열규와 김승찬은 '神託儀式'이라고 하여[9] 신의 예언에 따라 수로를 맞이하기 위한 구간집단의 영왕의식(迎王儀式) 내지는 영군제의로 인식하였고, 박준규는 「가락국기」와 그에 관련된 기사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욕지일의 제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10]

②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수로의 탄강과 나머지 다섯 가야의 성립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단락에서 다룰 <구지가>의 전쟁 서사시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有殊常聲氣)'는 부분인데 이 하늘의 목소리는 다름이 아닌 수로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이는 수로의 정체가 '天降日子'로서 하늘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방에서 유입된 이주민 세력임을 의미하고, 계시와 '천손하강'이라는 단계를 거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북방계의 이주민과 그들의 사상 체계가 가야 지역에 유입되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龜旨' 또는 '龜旨峯'에 대한 문제이다.

「가락국기」 본문 중의 '龜旨'는 단순히 가야 구촌의 지형적인 조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야 구촌의 신성 지역이자 핵심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삼한 지역의 신성지역이자 신과 인간

狀.故云也.)有殊常聲氣,呼喚衆庶,二三百人集會於此.有如人音.隱其形,而發其音曰.此有人否.九干等云.吾徒在.又曰.吾所在爲何.對云,龜旨也.又曰.皇天所以命我者.御是處惟新家邦.爲君后.爲茲故降矣.儞等須掘峯頂撮土.歌之云.龜何龜何.首其現也.若不現也.燔灼而喫也.以之蹈舞.則是迎大王,歡喜踊躍之也.

9) 김승찬, 『한국 상고문학 연구』(서울 : 제일문화사, 1978), p.34.
김열규, 앞의 책, p.5~25.

10) 박준규, 「세시가요 형성의 배경고」, 『한국언어문학』 제20집(서울 : 한국언어문학회 편, 1982), p.177~207.

의 교통 장소인 '蘇塗'가 존재한 것처럼 가야 구촌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의 신성 지역이 존재하였을 것이며, 그 신성 지역이 바로 「가락국기」에서 보여지는 '龜旨'라는 지역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로가 하늘로부터 알의 형상을 빌어 구지봉에 내려왔다는 「가락국기」의 기사는 이주민인 수로집단이 가야 구촌의 핵심 요지인 龜旨를 점령하여 가야 지역에 대한 정복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정치 지배 질서를 확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掘峯頂撮土'에 대한 해석이다.

'掘峯頂撮土'는 수로가 천상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발성하여 백성들을 모이게 한 후 첫 번째 지시한 것이자, 수로가 龜旨에 강림할 때 그를 맞이하는 구간 집단의 행위이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은 주로 노동과 관련된 의식행위로 간주해 왔고(안병국[11], 윤경수[12]), 김영수는 '수로'에 의해 통치되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동시에 봉선의식을 통한 천부의 신성왕권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13]

따라서 '掘峯頂撮土'의 행위는 당시 가야 지역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구간 세력에 대해 북방으로부터의 이주민 집단인 수로 집단이 우세한 선진 문명과 철기 및 기마 전사집단을 앞세워 가야 구촌의 신성지역이자 구간 세력의 핵심인 구지봉을 무너뜨려 가야 구촌을 접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착민과 이주민 집단간의 정복 전쟁 상황을 '흙을 파헤치는 행위'를 통해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후대인들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14] 이를 통해 기존 가야지역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체제와 강력한 왕권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구지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11) 안병국, 「수로신화의 문단구분과 신화소 검토」, 『한국고전문학의 이해』(서울 : 사암 윤철중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p.641~667.

12) 윤경수, 「수로신화에 나타난 광명상징과 영신제의적 성격 - 출산제의를 중심으로」, 『도해 한국신화와 고전문학의 원형 상징성』(서울 : 태학사, 1997), p.213~241.

13) 김영수, 「구지가의 재해석」, 단국대학교, p.2~21.

14) 안병국, 앞의 논문, p.664~667.

③ 수로의 등극과 가락국 및 오가야(五伽倻)의 성립[15]

③에서는 가야지역으로 유입된 수로 집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야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본문의 금합이 매달려 내려온 '자주빛 끈'은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천신족이자 북방계라는 수로 집단의 성격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의 명(天命)에 의해 이미 가락국을 세우도록 예정되어졌다는 천명성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정복 활동을 정당화하려고 한 의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알(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이나 왕권을 상징하고, '금빛을 발하는 알(金卵)'은 '천강일자(天降日子)'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당시 가야 지역의 토착신이라 할 수 있는 '거북'을 대신한 천신족 계열의 새로운 신격이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16]

그런데 가락국의 성립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가락국의 성립이 과연 이주민인 수로 집단 단독의 힘만으로 가능했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로 집단이 가야 지역에 유입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의 토착화 과정을 겪고 난 후 기존의 토착 세력의 일부와 제휴 또는 전략적 동맹의 관계를 맺고 점진적으로 가야 지역에 대한 세력권을 확장해 나갔을 것으로 간주하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구지봉 상에 하강한 금합은 아도간의 집으로 모셔지고 그 이튿날이 되자 여섯 개의 알이 모두 동자로 변하고, 다시 10여 일이 지나자 어른이 되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변신한 수로를 받들어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금합을 모셔 간 '아도간'의 정체라고 할 것

---

15) 九干等如其言.咸炊而歌舞.未幾仰而觀之.唯紫繩自天垂而着地.尋繩之下.乃見紅幅裏金合子.開而視之.有黃金卵六,圓如日者.衆人悉皆驚喜.俱伸百拜.尋還,裏著抱特而,歸我刀家.置榻上.其衆各散.過浹辰.翌日平明.衆庶復相聚集開合.而六卵化爲童子.容貌甚偉.仍坐於床.衆庶拜賀.盖恭敬止.日月而大.踰十餘晨昏.身長九尺,.....(중략).....其於月望日卽位也.始現故諱首露.或云首陵.(首陵是崩後謚也).國稱大駕洛.又稱伽耶國.卽六伽耶之一也.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16) 윤경수, 앞의 책, p.226~229.

인데, 이는 고대사의 불명확하면서도 대표성을 띄는 숫자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야 구촌의 한 부족을 다스리던 수장이나, 그 일족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수로 집단은 청동기 문명 단계의 가야 구촌 사람들보다 월등히 앞선 선진 문명 집단으로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정복 전쟁 과정에서 강력한 전사 집단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수로 집단이 남하하여 가야 지역에 유입되자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은 바로 거북을 토착신으로 숭배하던 가야 지역의 토착민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로 집단의 세력은 구간 세력에 비하면 상당히 열세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의 토착 세력과의 제휴 내지 동맹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17]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 관계가 부합된 수로 집단과 아도간으로 대표되는 구간 집단의 일부 세력이 연합하여 가락국 건국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주민 집단의 이동과 유입 => 토착 세력과의 연합 => 가야 지역의 정복」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수로 집단은 가야 지역에 그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미에 수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알에서 나온 사람들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국가 형성기의 가락국이 수로로 대표되는 북방계 이주민들이 가야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착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건국되고 있으며, 북방계 이주민들이 동 지역에 소국을 건국하고, 이를 소국 연맹체의 형태로 연합하여 기존 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배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6가야 연맹체'의 모습인 것이다.[18]

그러나 「가락국기」에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있어서 그 정확한 내용을 규명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자칫 자가당착적인 오류에 빠질 수도 있으나 상고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는 전제하에 상세한 구명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

17) 이종욱, 『한국의 초기국가』(서울 : 도서출판 아르케, 1999), p.233~247.
18) 이종욱, 앞의 책, p.228~258.

⑤ 탈해와의 술법 겨루기[19]

수로 집단이 가야 지역에 정착하고 지배권을 확보하여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던 시기에 수로 집단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주민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⑤단락에서 보여지는 '탈해 집단'인 것이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탈해는 완하국-혹은 용성국이라고도 함-의 왕자 출신으로 그 신이한 탄생으로 인해 버림을 받고 가락국의 영토로 이동, 수로와의 술법대결에서 패하여 신라로 도망을 하게 된다. 또한 탈해 집단은 본문 중에 "바다로부터 왔다.(從海而來)"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 남방 계통의 해상 세력의 일파이거나 가야 구촌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집단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가야 지역에서의 수로 집단에 의한 강력한 통치 체제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과, 또 다른 이주민 집단을 등장시켜 새로운 충돌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가락국의 성립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가락국의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속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0]

⑥ 허황옥의 도래와 수로의 혼인담

「가락국기」를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수로의 혼인담'에 관련된 사실이다. 본문을 보면 수로가 등극을 한 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혼인을 하지 않아 구간들이 왕의 배필을 뽑겠노라고 주청을 하자, 수로는 하늘에 의한 배우자의 점지를 자신하며 신하들을 달래고 있다.

이는 수로 자신이나 집단이 가야 지역의 지배자로서 아직까지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신하들의 왕비 간택에 관한 주청 역시

---

19) 忽有琁夏國含達王之夫人妊娠.彌月生卵,卵化爲人.名曰脫解從海而來.....(중략).....語於王云.我欲奪王之位,故來耳.王答曰.天命我俾卽于位.將令安中國,而綏下民.不敢違天之命,以與之位.又不敢以吾國吾民,付囑於汝.解云.若爾可爭其術.王曰可也.俄頃之間.解化爲鷹.王化爲鷲.又解化爲雀.王化爲鸇.于此際也.寸陰未移.解還本身.王亦復然.....(중략).....王竊恐滯留謀亂..急發舟師五百艘而追之.海奔入鷄林地界.舟師盡還.....(중략).....

20) 백승충,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 『부대사학』 13(부산 : 부산대학교 사학과, 1989), p.127~143.

물리친 것은 강력한 통치 체제를 완비하지 못한 상태의 인식에서 연유한 토착민에 대한 경계심과 기존의 정복 전쟁 과정에서 무력화된 구간 집단과의 결합을 원치 않았음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등장하는 인물인 허황옥은 탈해와 마찬가지로 남방을 통해 유입된 이주민 세력의 한 집단이 아닐까 추정되는데, 이는 왕후의 도래담을 통해 잘 드러나며, 두 사람의 혼인은 도래집단간의 결속을 통해 구간 세력들에 대한 확실한 제압과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존의 토착민이 아닌 이주민 중심의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여 국가 형성기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코자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락국기」는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한국 상고문학의 기원과 고대 서사 문학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고대 국가 형성기에 한반도 남부의 리드미컬하고 역동적인 사회 변화상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지가>의 전쟁 서사시적 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가락국기」내에 삽입되어 전하는 <구지가>는 神謠의 형식을 빌어 이주민과 토착민 집단의 전쟁과 정복 활동 및 융합과정을 통해 가락국의 성립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며, 고대인들의 솔직한 정서와 역사적인 상황을 은유와 상징의 수법을 통해 간략하면서도 풍부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 서사 문학의 전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Ⅳ. <龜旨歌>의 戰爭敍事詩的 構造

1. <구지가> 구조 분석의 전제

<구지가> 연구는 그 동안 신화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즉, 가락국 건국신화의 배경원리나 영신군가의 의미, 또는 신맞이굿의 한 형태로 연구되어 왔으나, 앞

21) 『三國遺事』권 제2「駕洛國記」首露王條
"今年五月中.父王與皇后顧妾而語曰.爺孃一昨夢中.同見皇天上帝.謂曰.駕洛國元君首露者.天所降而俾御大寶.乃神乃聖.惟其人乎."

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기존의 질서의 토대 위에서 보다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단계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발전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 질서의 이동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수로 집단에 의한 정복 전쟁'이라는 수단임을 추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락국기」의 형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건국시조의 영웅화나 신성화라는 건국 신화의 특성으로 볼 때 <구지가>는 수로왕 탄강 당시의 노래가 아닌 후대인에 의해 「가락국기」의 신성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적 장치로 덧붙여진 것일 수도 있고, 당시 삼한 지역의 신성 지역인 蘇塗에서 불리워진 의식요의 변형으로도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구지가>의 형성을 이주민 집단이 토착민 집단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행해진 두 이질 집단 간의 정복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서사시적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가락국기」는 가락국이 건국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철저히 정복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요, <구지가>는 북방계 이주민들이 남하하면서 기존의 토착민 세력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전쟁 수행 과정을 노래의 형식을 빌어 상징적,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술한 「가락국기」의 서사 문맥에 대한 재해석에 의거 <구지가>의 각 구에 드러나는 내용들을 전쟁의 수행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구의 내용과 상징적 이미지들을 재해석함으로써 기존 연구 성과에 덧붙여 <구지가>가 기원을 전후한 시기 한반도 남부의 새 정치 질서 확립과 가락국의 건설이라는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증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구지가>의 전쟁서사시적 구조 분석

고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전쟁과 제사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부족 단위로 씨족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치적인 규율 하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동기와 철기 등의 선진문명 도입과 궤를 같이 하여 타 지

역에 대한 활발한 정복활동을 벌이게 되었다.[22]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반도의 북부 지역에 최초로 국가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일부가 반도의 남쪽으로 이동 가야 지역에 유입됨으로써 토착 세력과의 투쟁과 화합 과정 속에서 가락국이라는 초기 국가 체제를 출범시키게 되는 것이다.

<구지가>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을 4언 4구의 한역가라는 형식을 통해 상징적,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본고의 목적은 이 <구지가>를 전쟁 서사시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존의 선행 연구에 덧붙여 상대 가요 해석의 새로운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전쟁 서사시로서의 <구지가>를 전쟁 수행 단계에 입각해서 「① 전쟁 준비 및 임전의식 고취 => ② 출정과 대치 => ③ 적에 대한 위협과 회유 => ④ 구체적인 전투 행위(=정복전쟁) => ⑤ 수로 집단의 승리와 가야 구촌의 주도권 확보」 등의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하여 <구지가> 속에 담겨져 있는 전쟁 서사시로서의 성격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1) '龜何龜何' - 전쟁 준비 및 임전의식 고취

기존의 연구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왔던 부분은 1구의 '거북(龜)의 상징성'에 대한 문제이다. 바로 이 거북(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지가>의 성격을 구별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준규는 <구지가>의 내용을 통해 수로 전승을 분석해 이를 기자(祈子)의 동기가 부족 전체의 영도자 탄생을 기구하는 염원으로 발전된 산문전승으로 보았다.[23]

강은해는 '거북'을 '신격'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매개자, 즉 '샤만'으로 파악하여 간접적인 호격에 의한 신격의 출현, 즉 '수로'의 탄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학성은 '龜'를 고대 사회의 제의-출산제의-와 관련시켜 해변을 낀 가락국의 상징물로 파악하여 제2구의 '首其現也'는 '거북아 너의 머리를 내어라'고 하

22) 최몽룡・최성락 편저, 앞의 책, p.101~105.
23) 박준규, 「상고의 세시무가고」, 『어문논총』 제6호(광주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어문학연구회, 1982), p.92~103.

여 장차 군주의 자리에 오를 수로의 정상 출산을 촉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4]

이외에도 <구지가> 제1구의 '거북(龜)'에 대한 학설들은 박지홍을 비롯해서 황패강, 소재영 등의 연구가 있는데 그 개략을 살펴보면 대체로 '거북(龜)'을 군주 내지는 임금, 토템 동물 등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영신제의와 출산제의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의미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인들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수렵과 전쟁을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선사시대의 유적을 보게 되면 그러한 고대인들의 소망이 그림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상북도 울주의 반구대나 천전리 각석에는 고대인들이 사냥을 나가기에 앞서 자신들이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들을 각석을 하고 제를 올린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구지가>의 제 1구에 나타나는 '거북(龜)'은 수로 집단이 가야 지역을 경략하면서 맞부딪는 재지 토착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야 지역에 유입되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구간 집단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두 이질 집단간의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며, 이러한 충돌 과정은 결국 이주민 집단에 의한 정복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선행 연구자들의 해석들처럼 <구지가> 제1구의 '거북(龜)'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해석대로 '거북 = 儉 = 금 = 임금 = 군주'라는 개념보다는 역사적 사실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전제하에서 살펴보면 당시 가야 구촌의 구간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토착민들의 기득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구지가>를 전쟁 서사시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로가 여러 부족들을 통일하고 가락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토착민 등이 그 전과 같이 구지봉신을 숭배할 경우 천신족인 수로의 권위가 문제시되므

24) 김학성, 「고대 출산제의의 일유형」, 『한국민속학』 12(서울 : 민속학회, 1980), p.59.

로 새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영신제의 때 <구지가>를 부르게 한 것이다. 즉, 수로는 구간들이 신봉했던 구지봉신의 숭배를 천신족의 신앙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므로 나라굿을 연희하여 <구지가>를 부르고 춤추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북'은 수로 집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름 아닌 적의 이름, 여기서는 가야 지역의 기존 재지·토착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들 적을 부르는 행위는 출정에 앞서 전사들의 전투 사기와 임전 의식를 북돋우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일종의 자기 최면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1구의 '龜何龜何'는 기존의 연구 결과물들의 내용처럼 군장이나 왕을 상징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껴나 당시 거북으로 지칭되던 가야 지역의 주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呼名에 의해 적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전투 의지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구의 '龜何龜何'는 영신제의 측면에서 고찰한 것처럼 새로운 군장의 탄강을 기원한다기보다는 이주민인 수로 집단이 가야 구촌의 토착 세력을 정복하여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정복 전쟁이나 그 준비과정에서 행해졌던 의식에서 불리운 전사 집단의 노래의 도입부로서 '거북(龜) = 검(劍) = 무력'을 의미한다고 가정해 볼 때 상대방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나 정복 의지를 토착 세력의 상징물인 '거북(龜)'을 연호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首其現也' - 출정과 대치

전쟁 준비 단계가 끝나고 적에 대한 실체 파악과 전투 의지 고취가 완료된 정복민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지방의 경략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기존 토착 세력을 흡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마 민족의 정복 전쟁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공략 대상이 되는 적에 대해서는 언제나 화전양면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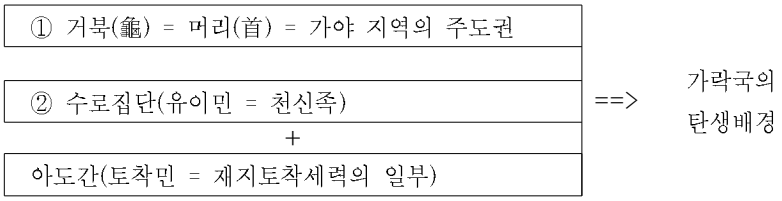
따라서 북방계의 이주민들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착 세력과의 제휴를 시도했음은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수로의 탄강 시에 구간 중의 일인인 아도간이 자신의 집으로 금합을 가지고 가서 부화하기를 기다렸다는 기록에서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당시 이주민이었던 수로 집단이 가야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이주민 집단의 상대적 약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간 중의 일부 세력과 연합이나 제휴의 방식을 통해 세력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 연합의 대상을 '아도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토착 세력과의 연합이나 제휴가 여의치 못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력한 기마 전사 집단과 철기를 앞세운 정복 전쟁을 통해 적대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지역의 경략에 임하였을 것이다.

가야 지역 역시 「가락국기」의 서사 문맥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적 실체를 바탕으로 볼 때 이주민들이 선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야 지역의 세력들을 병탄하려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구지가>의 문맥 속에 보여지는 '首'나 '現'이라는 자구를 미루어 볼 때 '머리(首)'라 하는 것은 1구에서의 '거북(龜)'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야 지역의 주도권 내지는 부족 연맹체를 상징하고, '내밀어라 / 나타내어라(現)'라는 명령형 수사는 전쟁에 앞서 적대 세력에 대한 포섭과 회유의 방편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1구의 '거북(龜)'이나 제 2구의 '머리(首)'는 거의 유사한 의미로서 가야 지역의 주도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술한 수로 집단과 아도간의 연합으로 인해 가락국 형성의 토대가 닦아지며 다음과 같은 도식화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지가> 제 2구의 '首'의 의미는 '거북(龜)'의 머리로 보든 '거북(龜)'의 신체와 관련없는 '신군(神君;대왕)'으로 보든지 간에 '수(首)'의 顯現, 즉 가야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민 집단의 소망이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창

자들의 응집된 소망의 표현이며, <구지가>는 그러한 소망을 실현시키는 데 쓰이는 呪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2구의 '首其現也 = 머리를 내놓아라'고 하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거북토템이나 천신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가 아닌 서사적 측면에서 재고해 보았을 때 당시 가야 지역의 기득권 내지는 권력을 쥐고 있던 구간 세력, 혹은 가야 지역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이양하라는 威嚇的인 언사와 강요의 측면에서 재고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쟁 촉발 전의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若不現也' - 적에 대한 위협과 회유

<구지가>의 제 2구에 나타난 '首其現也'는 수로 집단이 가야 지역에 유입된 후 상당 기간의 정지 작업을 벌인 끝에 어느 정도의 세력권을 확보하게 되자, 토착 세력인 구간 집단을 향해 자신들의 우수한 선진 기술과 군사력을 과시하며 기득권 이양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아도간으로 대표되는 일부 세력만을 제외한 다수의 가야 토착 세력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에 대한 대안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정복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구지가> 노래 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제3구에 나오는 '若不現也' 부분이다. 과거의 선행 연구에서도 이 제3구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구구하여 <구지가>가 명령적이요 위압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이것을 주술적 수단이나 신령의 출현을 强請하는 鎭魂的 내용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구지가>의 제 3구는 앞선 제 2구의 이주민과 토착민의 대치 국면에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게 하려는 고도의 화전 양면적 정치술을 보여주는 것이며, 적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 燔灼 : 구체적인 전투 행위

토착 세력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실패로 돌아가자 이주민 세력은 이제 구체적이고 확실한 주도권 확보의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데. 본문 중에 나오는 '燔灼'(구워서 먹으리)이라는 구절은 이러한 일련의 구체적 전쟁 수행 양상을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

'燔'이나 '灼' 이라는 한자는 모두 불 화(火)변에 있는 글자들로써 이는 수로 집단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고, 토착민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한 평화적인 세력 교체가 아닌 적극적인 정복 활동, 즉 전쟁을 통한 적대 세력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토착 세력의 반발이 상당했음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구지가>에서 거북이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한 것은 천신족인 수로 집단이 거북을 토착신으로 숭배하던 가야 구촌의 백성들과 그 수장인 구간 세력을 위협한 것과 다름없다. <구지가>는 토착민들이 합창함으로써 구지봉신을 잡신으로 격하시켜 새로운 왕의 탄강, 즉 수로를 맞이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로가 '天降日子'라는 것을 이미 앞부분의 기록들을 토대로 하여 살펴보았다. 수로는 많은 부족을 통합하여 가락국을 탄생시켰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 세력이 준동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들이 신봉했던 구지봉신을 은근히 배척하는 명령을 내려 이를 거역할 시는 '거북을 구워먹겠다(燔灼而喫也)'고 위협을 하는 행위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강력한 정복활동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구나 수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많은 부족을 통합했으므로 거북을 부족 자체로 파악하고 대왕을 맞이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정성을 표하지 않으면, 철기 문화로써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는 위협적 언사로서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설에서는 '燔灼=거북의 살해'로 보는데 이것은 가야 지역의 성수인 거북을 살해함으로써 수로집단에 의한 가야 9촌의 정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신족인 수로 집단이 가야 지역에서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간을 필두로 하는 가야 지역의 토착민들이 지신으로 숭상하던 거북에 대한 살해 행위를 함으로써 천신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지신족인 가야 지역민들이 복속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의도로 행해진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술한 「가락국기」에 나오는 '掘峯頂撮土'에서 그 의미적 유

사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도식화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얼개가 그려짐을 알 수 있다.

수로 = 火神 = 천신족 = 북방계 이유민
↓(대립)
燔灼 = 정복전쟁 ==> 喫也
a. 유이민에 의한 기득권 쟁취 => 가락국 건국
b. 새로운 지배체제의 성립
↑(대립)
구간 = 龜・首 = 지신족(거북) = 토착민, 기득권 세력

그리고 「가락국기」와 <구지가>에서 보여지는 수로의 정체는 불을 상징하는 '화신(火神)'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이를 남성 상징이나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불에 구워먹겠다'는 해석은 기존의 위협적 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 문명과 기술을 소유한 수로 집단이 가야 구촌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아도간'으로 대표되는 기존 토착 세력의 일부와 제휴 내지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어 가야 지역을 적극적으로 경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후대에 역사적 전승을 기리고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를 모시는 나라굿, 즉 삼월 삼짇날의 국중대회에서 역사적 사실이 회석되고, 지배 집단의 정치적 의도-가야 지역 정복의 정당성 천명, 천신계인 수로집단의 신성성 강조-를 위해 '시가'라는 은유적 수사의 방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5) '喫也' - 이주민의 승리와 주도권 확보

토착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북방계 이주민 세력은 급기야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가야 지방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는 우수한 무기와 전사 집단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복 활동을 벌여왔던 이주민 세력에게 있어서 새로운 영토 확보를 통한 국가 건설의 단초 마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구체적인 전쟁 행위로서 제시되었던 '燔灼'이 결국은 토착 세력

의 붕괴, 즉 북방계에 의한 남방계의 흡수 통합을 의미하는 '喫'으로 귀결됨을 볼 수 있다. '구워서 먹는다'는 행위는 적의 완전한 제압과 주도권의 쟁취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천손 강림 중심의 북방계 건국신화와 난생 중심의 남방계 건국신화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표면상으로는 가야 구촌의 수장인 구간의 추대를 받아 <수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주도 세력, 즉 가락국이 탄생함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처럼 본고에서는 <구지가>를 전쟁 서사시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그 단락을 구분하여 간략하게나마 <구지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 형성기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구지가>는 수로가 여러 부족들을 오랜 기간 동안의 정복 전쟁을 거쳐 가야 구촌을 통일하여 가락국을 세운 후, 천신족(=수로집단)과 거북족(=가야구촌)의 화합을 도모하는 국중대회를 열어 나라굿으로 천신족의 신성성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지봉에서 제천의식 때에 불려진 노래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복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전사들의 원혼을 달래는 진혼의 노래이자, 치열했던 정복 전쟁기의 위업을 찬양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戰勝歌로서의 성격도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존에 단순하게 '서사시'라고만 그 장르 개념을 설정해 오던 개괄적인 입장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더 세분화되고 명확한 장르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구지가>는 「가락국기」라는 배경 설화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고대에 발생했던 한 국가의 탄생과 발전, 이질 집단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염원을 노래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고 있는 웅대한 전쟁 서사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의 많은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結 論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대로 '영신군가'나 '주술가', '노동요', '의식요'의 성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시키는 새로운 관점에서 <구

지가>에 나타난 전쟁 서사시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가락국기」의 서사 구조를 국가 형성기의 치열한 투쟁의 모습으로 바꾸어 해석하고, 나아가 〈구지가〉를 가락국 건국과정을 담고 있는 전쟁 서사시의 개념으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논리 전개상 다소간의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시가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과 연구를 통해 작품 해석의 다각화를 시도하여 상대 문학의 연구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전 방향 및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가락국기」와 <구지가>의 형성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통해 가락국의 성립과 성장을 각종 유물과 유적상황,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재구해 보았다. 그리고 「가락국기」와 <구지가>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가락국의 건국을 신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락국기」의 전문 중에서 수로의 탄강 이전부터 수로와 허황옥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만을 따로 발췌하여 단락별로 구분하고 이를 역사적 상황과 결부시켜 서사 구조를 재해석해 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덧붙여 새로운 서사 구조의 설정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쟁 서사시로서의 <구지가>를 전쟁 수행 단계별로 구분/세분화하고, 각각의 전쟁수행 단계를 배경 설화인 「가락국기」의 서사 구조와 연관지어 자구 해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과는 별개의 개념을 도출해 보았다.

그리하여 가락국의 건국과 관련되어 「가락국기」 속의 삽입 가요로 전하고 있는 <구지가>의 성격을 수로로 대표되는 북방계 이주민 집단이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한반도 남부로 이동,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앞선 선진 문명과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가야 지역의 기득권을 빼앗기 위하여 시도했던 정복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서사시로서의 성격을 새로이 규정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의 이주민과 토착민간의 지역 주도권 쟁탈전이 한 국가의 건국이라는 대사건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구지가>는 「가락국기」라는 배경 설화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고대에 발생했던 '가락국'이라는 한 국가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이질 집단 간의

정복 전쟁을 은유와 상징의 수법을 통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수로 집단으로 대표되는 이주민과 기존의 가야 구촌의 토착민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염원을 노래의 형식을 빌어 표현하고 있는 웅대한 전쟁 서사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구지가>는 국문학사 통틀어 건국신화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삽입가요이며, 더욱이 군장의 탄강과 국가의 형성이라는 거대한 모티프를 다루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지가>는 전사의 노래이자 당시대인들의 의식구조나 생활모습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으로 원용하여 시작품으로 형상화한 일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볼 때 <구지가>가 국문학사상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본고는 <구지가>가 전쟁 서사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시가에 대한 다양하고 활발한 재해석을 촉발시켜 상대 시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면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고자 시도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사료의 빈곤과 부재로 인해 연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대 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문학적인 측면에만 국한해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연관 학문의 연구 성과물들을 문학적 텍스트로 원용하여 문학 작품 분석이나 연구의 새로운 방법으로 삼기 위한 시도를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바이다.

더구나 상대 문학은 그 작품의 수나 내용 면에 있어 다른 고전 문학 텍스트에 비해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학문 영역 파괴와 상호 보완 등의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상대 시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면 현재까지 연구되어져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연구 활동이 가능해지리라고 본다.

주제어: 구지가, 가락국기, 전쟁서사시

참고문헌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맥 연구』, 서울, 태학사, 1995.
김병국, 『고전시가의 미학탐구』, 서울, 월인, 2000.
김승찬, 『한국상고문학연구』, 서울, 제일문화사, 1978.
김열규,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서울, 집문당, 1992.
_____, 『한국신화와 원초의식』, 서울, 이우출판사, 1980.
김영청·박진태·이규호 공저, 『한국시가의 재조명』, 서울, 형설출판사, 1984.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서울, 원광대 출판국, 1980.
윤경수, 『도해 한국신화와 고전문학의 원형 상징성』, 서울, 태학사, 1997.
윤철중, 『한국의 시조신화』, 서울, 보고사, 1998.
이중재, 『처음으로 밝혀진 새 가야사와 삼국열전』, 서울, 명문당, 1998.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서울, 집문당, 1992.
정상균, 『한국 고대 서사문학사』, 서울, 태학사, 199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서울, 지식산업사, 1989.
조희승, 『가야사 연구』,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4.
최몽룡·최성락 편저, 『한국고대국가 형성론-고고학상으로 본 국가』,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7.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서울, 월인, 2000.
김균태, 「<구지가>연구 : 수로신화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2, 1996.
김창룡, 「구지가의 '검', '수' 논증」, 『인문과학』 62, 서울,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89.
나경수, 「한국 건국신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박준규, 「한국 세시가요의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성기옥, 「<구지가>의 작품적 성격과 그 해석(1)」, 『울산어문논집 제3집』, 울산,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1987.
안병국, 「수로신화의 문단구분과 신화소 검토」, 『한국고전문학이해』, 서울,

사암 윤철중 교수 퇴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000.
이규동, 「구지가와 고대제의의 관련성」, 『민족문화논총』, 1973.
정상균, 「한국 고대시가 배경설화의 상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4.
지병규, 「고대 한국 건국신화의 문학적 원형고찰」, 『웅진어문학』 창간호, 1993.
황국명, 「가락국기의 산상의례와 구지가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31집, 부산,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War Epic Aspects of *Gujiga* through Review of *Garakgukgi*

Cha, Jae-Hyung

Because *Gujiga* exists as an inserted poem of Garak founding myth in *Garakgukgi*, a historical book of Gaya,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spect closely the part of the King, Suro's birth and coming down tale or enthronement tale for interpreting or analyzing newly from a different standpoint.

This study aims to reconsider historically the formation course of Garak allied countries in the view of narratives, to clarify the symbolic meanings of 'turtle' and 'the head' in *Gujiga*, and finally to analogize the war epic characteristics of Gujiga setting up the diverse and step by step aspects in use of phrases analytical research.

In the introduction, I studied and analyzed preceding researches synthetically as a pre-stage. And main arguments of each chapter in the body as follows:

Chapter II shows the forming and developing course of Garakguk in the historical side as well as the side of Korean literature diversely. The formation of Garak country which is not a simple myth is proved by places, remains or records of historic interest in this study.

In the Chapter III, I analyzed the epic structure of *Garakgukgi* in order to review the war epic characteristics of *Gujiga*. It also deals with how the tribe at that time in Gaya province changed to the early country, and it shows that *Gujiga* is not a simple *Youngsingunga*(the greeting songs for the lord) by means of 'the myth of God the son's adventism' and 'the

oviparous myth' in the King, Suro's tale, but a product by the union of distinctive groups such as conquerors and natives. Therefore, the formation of Garakguk was achieved in the course of war between immigrants from the northern province, i.e., the conquerors and the natives in Gaya province.

Chapter IV explains the war epic structure of *Gujiga* on the ground of analyses the epic structure of *Garakgukgi.* Moreover, I reconsider the symbolic characteristics of 'turtle' and 'the head' which were often treated in preceding researches. *Gujiga* is the conqueror's song which was made in those days of uniting course of other distinctive groups, not an incantation song, a labor song, or a greeting song for the lord. That is to say, the war epic characteristics of *Gujiga* are related to historical situations during Garakguk forming days.

And Chapter V and VI examine the significance of *Gujiga* in the literary history, present our tasks from now on researching the songs of ancient times, and set the practical cooperating possibility between contiguous studies and Korean literature practically.

In conclusion, the myth of Garakguk is converted into an actual view through preliminary inspections about *Garakgukgi* and *Gujiga*. *Gujiga* is the war epic which was made during the Garakguk forming war at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it is to say that *Gujiga* is the song of soldiers as well, reflects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nd life styles at that time as the first epic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